

광주·전남 고용 회복세 하반기도 이어질까

광주·전남 상장사 16곳 상반기 공시

코로나19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광주·전남 지역 상장기업 16개사 고용 인원이 지난해보다 1400여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 둔화가 전망되면서 이 같은 고용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21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12월 결산 광주·전남 상장기업 16개사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직원 수는 총 4만36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3만8908명)보다 3.7%(1452명) 증가했다.

고용 인원이 증가한 비율로 따지면 중견기업 대우플러스 증가율이 40.5%로 가장 높았고, 금호타이어는 증가 인원수(786명)가 가장 많았다.

대우플러스는 직원 수를 전년보다 40.5%(49명) 늘어난 170명으로 공시했다. 이어 우리중금(금융업) 19.5%(221명→264명), 금호타이어 17.0%(4613명→5399명), 보해양조 14.3%

직원 수 4만360명으로 지난해보다 1452명 늘어나 평균 연봉 3249만원 '10.5%' ↑...한전 등 4곳 감소 우리중금 1950만원 늘어난 6750만원 '최대 증가폭'

(230명→263명), 대우에이텍 11.4%(307명→342명), 다이나믹디자인(옛 세화아이엘씨) 7.2%(307명→329명) 등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공기업 한국전력 직원은 2만3815명으로, 전년(2만3333명)보다 2.1%(482명) 늘었다.

조선내화와 화천기공은 각각 전년보다 2명 늘어난 531명과 324명으로 직원 수를 공시했다. 한전 KPS(6625명)와 금호에이치티(484명)는 지난해와 직원 수가 같았다. 부국철강(-6명), 금호건설(-3명), DSR제강(-1명), 광주신세계(-1명) 등은 전년보다 직원 수가 줄었다.

이들 상장사의 평균 연봉(1인당 평균 급여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3249만원으로, 전년(2938만원)

보다 10.6%(311만원) 올랐다. 16개사 가운데 4곳을 제외한 8곳이 전년보다 연봉이 인상됐다.

지역 상장기업 가운데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중금으로, 직원들은 전년보다 40.6%(1950만원) 늘어난 6750만원을 받았다.

증가 비율을 비교해보면 DSR제강이 전년보다 31.4%(2515만원→3305만원) 오르며 우리중금의 뒤를 이었다.

화천기공 22.3%(1921만원→2350만원), 다스코 19.4%(1919만원→2292만원), 부국철강 14.7%(1851만원→2123만원), 다이나믹디자인 12.7%(4614만원→5200만원), 조선내화 12.5%

(2800만원→3150만원) 등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또 금호건설 6.8%(2844만원→3037만원), 대우플러스 6.8%(2252만원→2406만원), 한전KPS 2.5%(3317만원→3400만원), 금호에이치티 1.6%(2107만원→2140만원), 광주신세계 1.5%(3400만원→3450만원) 등도 연봉이 올랐다.

반면 보해양조 직원 평균 연봉은 2298만원에서 2182만원으로 5.0%(-116만원) 줄었다. 이외 금호타이어 3.1%(3250만원→3150만원), 대우에이텍 1.3%(3064만원→3024만원), 한국전력 0.5%(4053만원→4031만원) 등 감소율을 나타냈다.

올 상반기 광주·전남 상장사들의 여성직원 평균 연봉은 남성의 70%에도 못 미쳤지만, 직원 수와 연봉 평균 증가율은 남성보다는 높았다.

16개 상장기업 남성 직원 수는 올해 3만3399명으로, 전년(3만2337명)보다 3.3%(1062명) 늘었다.

여성 직원은 6571명에서 6961명으로, 5.9%(390명) 증가했다. 여성 직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50% 늘어

난 대우플러스(16명→24명)였고, 여성 직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한전(5144명→5431명)이었다. 여성 직원이 줄어든 곳은 조선내화와 다스코, 부국철강 등으로 전년보다 각각 1명 감소했다.

지역 상장사들의 평균 연봉은 3249만원으로 전년보다 10.6%(311만원) 오른 가운데, 같은 기간 남성은 10.4%(364만원), 여성은 14.5%(332만원) 증가했다.

남성 평균 연봉은 3850만원으로, 전년(3486만원)보다 10.4% 올랐다. 여성은 지난해 2292만원에서 2624만원으로, 14.5% 증가했다.

여성 평균 연봉이 전년보다 줄어든 곳은 보해양조(-8.8%), 금호타이어(-3.3%), 대우플러스(-1.0%), 금호에이치티(-0.5%) 등 4개사였다. 이 가운데 대우플러스(11.7%↑)와 금호에이치티(3.4%)는 남성 평균 연봉은 오르고, 나머지 보해양조(-1.9%), 금호타이어(-2.9%) 2곳은 남성 연봉도 떨어졌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금리 0.25%p 올리고 물가 5%대 상향 예상

한은, 25일 금통위...전문가들 "경기 우려 등에 빅스텝 가능성 적어"

"수출둔화·투자위축에 경기 하강...올 성장률 2%대 초중반 그칠듯"

한국은행이 오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5%대로 크게 올려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까지 커졌기 때문에, 인상 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108.74)는 외식·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3% 뛰었는데, 이는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더구나 향후 1년의 예상 물가 상승률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지난달 4.7%로 6월(3.9%)보다 0.8%포인트나 더 올라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물가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상태도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빅 스텝을 결정하면서 상당수 금통위원도 비슷한 근거로 추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두 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밝힌 뒤 미국의 기준금리(2.25~2.50%)는 한국(2.25%)보다 높아졌

다. 한은으로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격차를 좁혀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원화 약세, 환율 변화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의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불안한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금통위가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빅 스텝에 나서는 않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대체로 금통위가 남은 10월, 11월에도 최소 한 차례 이상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해 연말 기준금리가 2.75%~3.00%에 이르는 시나리오에 무게를 뒀다.

금통위 회의가 열리는 25일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도 내놓는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한은이 현재 4.5%인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대까지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반대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경우 2.7%에서 2% 초중반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 중기 '일·취·월·장' 공모전

국토부 22일~내달 23일

청년창업 중기 가점 부여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일·취·월·장'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2020년을 시작으로 올해 세 번째를 맞았다. 기술 개발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민간 일자리 창출을 이룬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대상은 우수 기술을 토대로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사업화(매출증대) 및 신규 채용 실적 우수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이다. 2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기업지원 허브 홈페이지(https://hub.kaia.re.kr)에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스타트업과 청년창업기업도 선정될 수 있도록 시상의 절반을 창업 7년 미만 기업에게 수여하고, 심사 시에도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수상기업 선정은 지난 1년간의 일자리 창출 성과 및 매출실적, 지역사회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7개 기업에 대해 이뤄진다.

최우수상에는 국토교통부장관상과 상금(500만원)이, 우수상 및 장려상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상과 상금(200만~300만원)이 수여된다.

수상기업에 포함해 모든 참여 기업에게는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기업지원프로그램을 맞춤형 지원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지역 소상공인 살리고 노트북 받자

전남 공공배달앱 '먹깨비' 농협카드 결제 이벤트

NH농협과 전남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손잡고 전남 공공배달앱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20일까지 한 달간 소비자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경품은 행사기간 내 NH농협카드로 먹깨비 배달앱 2회 이상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노트북, 스마트워치, 전남 방문의해와 연계한 숙박권, 우리쌀 소비촉진을 위한 유기농쌀 등 600명에게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남 먹깨비는 지난 7월 14일 전남도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영업이익, 소비자는 착한 소비를 위해 출시한 공공배달앱으로, 가맹점은 기존 배달앱과는 달리 광고비도 없이 10분의 1수준인 1.5%의 저렴한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또 소비자는 쿠폰, 이벤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소비에 동참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전남 먹깨비는 출시 한 달여만에 누적 주문 2만3000건(거래금액 5억원)을 돌파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d@kwangju.co.kr



어르신 몸 챙기세요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가운데) 임직원과 대학생 홍보대사 20명은 최근 광주시 서구(청장 김이강·오른쪽 3번째)와 화정동 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고령자를 위한 한방 삼계탕 350인분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금융노조 파업 가결...9월 16일 업무 중단

광주은행 등 전국 찬성률 93.4%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의 쟁의 행위 투표 결과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소속 지부인 광주은행 노조도 오는 9월 16일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21일 금융노조 광주은행지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조합원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율 89.3%에 찬성률 98.6%로 가결됐다. 전국 찬성률은 93.4%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캡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노조 소속 노조원

들은 다음 달 16일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조합원 1000여 명의 절반가량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며 이날 파업에 동참한다.

광주은행 노조는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광주시 동구 대인동 은행 본점에서 출근 시간, 점심 시간을 활용해 '1인 1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주부터는 조합원들이 명찰 달기 등을 활용한 준비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노조의 총파업이 현실이 되면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금융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임금 6.1% 인상과 주 36시간 근무, 영

업점 폐쇄 금지 등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사측(금융산업협의회)은 임금 인상률로 1.4%를 제시하고, 근무시간 단축과 영업점 유지 등에도 난색을 보인다.

이성욱 광주은행 노조위원장은 "2016년 총파업 이후 광주은행 노동자들은 해마다 임금 인상률이 1%대에 그치며 실질적인 '마이너스' 인상을 견뎌왔다"며 "귀족노조"라는 프레임에 가둬놓고 판치금융을 부활시키려는 일련의 상황이 우려스럽다. 국내 은행들의 이익이 많이 늘어났지만 노동자에게 그 이익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사측은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수자원공사 전남지역협력단 신안에 식수 지원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협력단은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신안 섬 주민들에게 최근 1.8 l 병물 6000병을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안은 저수지나 댐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담수 유역이 좁아 가뭄 때 물 부족 현상이 더러 발생한다.

신안 흑산도, 안좌도, 비금도는 최근 지속적인 가뭄에 따라 저수량이 줄어들어 제한급수와 같은 주민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수자원공사는 추석 명절 귀성객 방문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식수 부족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번 병물 지원을 추진했다.

이 병물은 수자원공사가 생산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로또복권 (제1029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2	30	32	37	39	41	24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527,848,450	10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67,952,916	62
3	5개 숫자일치					1,611,738	2,614
4	4개 숫자일치					50,000	125,573
5	3개 숫자일치					5,000	2,136,972